숨겨진 불교 항일운동 기록을 찾아서



꽁꽁 싸맨 보따리
이성수 지음 / 담앤북스
2만8000원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독립운동사 현장 조사로 밝혀낸 역사적 자료
만세운동 주도·한글 경전 발간 등
"독립운동은 중생구제의 방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윤봉길 의사가 불교 신자였다?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학림 학생들이 만해 스님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했다?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 한국 야구 최초의 시구가 이뤄졌다?

정말 그럴까, 고개가 갸웃해지지만 모두 역사적 사실이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간 '친일과 굴종의 역사'로 기억되어 온 한국 불교계의 일제강점기 역사에서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내 기록한 책이 출간됐다.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의 〈꽁꽁 싸맨 보따리〉는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직후 방문했던 서울 대각사부터 제주 법정사 무장 항쟁 현장까지, 전국의 독립운동 현장을 찾아다니며 발굴한 한국불교 독립운동의 기록이다.

책 제목은 '진관사 태극기(보물)'에서 유래한다. 2009년 서울 진관사 칠성각 보수 당시,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덧칠한 형태의 태극기에 독립신문류 등이 꽁꽁 싸매진 채 발견됐다. 이는 일제강점기 진관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백초월(1878~1944) 스님이 비장한 것이다.

책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역사를 △독립 △문화 △교육 △수행의 네 분야로 나눠 조명한다.

1부 '독립'에서는 해방 후 귀국한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서울 대각사를 방문해 동암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과 촬영한 사진이 72년 만에 공개된다. 또 윤봉길 의사가 1932년 상해 의거 후 종교를 묻는 질문에 '불교'라고 답한 일본군 신문 조서를 소개한다. 1919년 3·1운동 당시 중앙학림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통도사와 범어사 등 전국 사찰에서 독립의 함성이 울렸음도 알 수 있다.

2부에서는 문화와 교육, 수행으로 민족정신을 계승한 불교계의 활동을



해방 후 귀국한 백범 김구 주석이 출가 사찰인 공주 마곡사를 찾아 임시정부 요인 및 지역 주민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 제공=마곡사

기록했다. 일제의 탄압에도 범어사 해동역경원은 한글 경전을 발간해 민족의 얼을 지켰고, 조계사 마당에서 한국 최초의 야구 시구가 이뤄진 사실, 문화통치 기간에도 면면히 이어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부 '교육'에서는 민족학교 광성의숙과 청룡초등학교 설립, 야학 운동 등 불교계가 신학문을 가르치고 민중의식을 깨우치며 근대교육의 불씨를 지폈던 발자취를 다룬다. 4부 '수행'에서는 근대 최초로 인도를 순례한 이영재 스님과 이재민 구휼에 나선 만공 선사 등 수행과 중생구제를 멈추지 않았던 스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계의 굳건한 정신을 보여준다.

저자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문화를 보존하며,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를 준비한 선각자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그분들에게 독립운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었고, 중생구제의 또 다른 방편이었다"고 말한다.

율(律)의 씨줄과 날줄을 꿰다



정법의 변천에 관한 통시적 연구
설민 스님 지음
민족사 / 3만9500원

시대에 따른 정법의 변화와 수용
"한국불교가 다시 시작할 '화두'"

설민 스님이 초기불교부터 오늘날 한국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었는지를 고찰한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펴냈다.

정법(淨法)은 불교의 승가 공동체가 청정함을 유지하며 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원리다.

부처님 재세 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해결 과정에서 율(律)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부처님 입멸 후 시대가 흐르면서 '율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겨났고, 이는 수많은 분파와 논쟁, 다양한 실천 양식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율을 보존하면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법(淨法)이 탄생했다.

이 책은 율이 시대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수용·발전해 왔는지를 밝힌 '율학 통사(通史)'다. 율의 변화 과정을 다루는 한편, '정법'이라는 개념이 각 나라와 시대의 윤리적 요구에 부응한 방식을 살핀다.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제정한 계율을 철저히 지켰으며, 개인과 공동체의 해탈을 동시에 추구했다. 부파불교 시대에는 계율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승가 분열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율의 절대 보존'과 '시대에 맞는 율의 개편'이라는 양극단이 등장했다. 대승불교는 기존 율장을 부정하거나 우회하면서 자서수계, 십선계, 삼취정계 등 새로운 형태의 계율을 제정했고, 이는 '보살의 수행'을 강조하는 윤리로 전환됐다.

중국 불교에서는 선종의 '청규'가 현실과 수행을 조화시키는 실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한국불교에도 계승되어 조계종의 수행 전통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불교가 청규를 비롯한 다양한 정법을 통해 계율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적응해 왔다는 점이다.

저자는 "정법은 전통 계율을 보전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미래 불교를 여는 길"이라며 승가 교육 현장, 재가 신행 시스템, 불교 제도와 교단 운영에 이르기까지 불교 전반에 걸쳐 '다시 시작해야 할 화두'임을 역설한다.

설민 스님은 1985년 지형 스님(부산 보덕사)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에서 사미니계, 통도사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청암사 율원과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 연구과정,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화원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함양 향운암에 주석하며 한국불교상담학회 이사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여수령 기자

고요한 자리를 기억해 내는 '명상'



명상
심성일 지음
침묵의 향기
1만3000원

평화 이루는 20가지 명상법
'비이원론' 관점의 삶 제시

"명상은 어떤 특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선(禪) 공부모임을 이끌고 있는 저자가 명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에세이다.

1부에서는 20가지 명상을 통해 독자를 명상으로 이끈다. 후회, 불안, 두려움, 외로움, 무기력 등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 그 모든 감정을 허용하며 생각과 감정 너머의 평화로운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이 책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당신 안에 이미 있는 어떤 것을 기억하게 도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어 이전의 침묵, 생각 이전의 알아차림, 그리고 늘 여기에 있던, 참된 당신 자신입니다."

2부 '묻고 답하고'에서는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3부 '당신에게 보내는 마음 엽서'는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4부 '참된 수행: 일상의 문으로 들어가기'에서는 세계가 둘로 나뉘어 있지 않다는 '비이원론'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2013년부터 마음공부에 뜻을 둔 이들과 함께하며 현재 부산, 진주, 대구, 광주에서 공부 모임을 열고 있다. 저서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선(禪)으로 읽는 복음〉, 〈이것이 선(禪)이다〉, 〈깨달음의 노래〉, 〈자기에게 돌아오라〉 등이 있다. 여수령 기자

명상에 관한 일곱 개의 시선



명상전통 가로지르기
김준호 편집
조준호 등 지음
다르샤나 / 2만원

요가·명상 텍스트의 '맥락 너머'
실천적 전통을 오늘의 언어로

명상은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고 존재의 본질을 묻는 여정이다. 시대와 지역, 전통과 언어를 넘어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져 온 명상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인류 정신사의 위대한 유산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해 주는 소중한 지침이다.

〈명상전통 가로지르기〉는 요가와 명상 관련 텍스트의 '맥락 너머'를 탐구한 작업으로,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소장 임승택)가 2020년 9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요가와 명상: 텍스트와 트랜스-텍스트(Trans-text)'의 결과물을 모은 두 번째 책이다.

책에는 △정중무상과 태국 숲속 전통의 친화성(조준호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초빙교수) △선경(禪經)에 나타난 무념(無念)의 네 가지 의미(김준호 경북대 인문학술원 동서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텍스트 전승의 불일치와 명상수행의 변용(차상엽 경북대 인문학술원 동서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샤이바 딴뜨라 전통에서 꾼달리니 개념의 탄생과 발전(방정란 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 △좌·우 코를 이용한 호흡법 연구(박영길 경북대 인문학술원 동서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등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사상적 배경의 명상전통을 재조명한 글이 담겨 있다.

임승택 소장은 "이 책은 한편으로는 동양 고전문헌에 대한 정밀한 문헌학적 분석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명상이라는 실천적 전통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리려는 사유의 여정"이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은 명상이라는 주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팔정도와 간화선의 수행 방법 중도로 융합!
현대인을 위한 간화선
간화선의 수행 방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우리 삶을 실천과 자비로 이끌고, 이를 통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한다.
오용석 저/신국판/328쪽/값 23,000원

부처님의 교법과 수행의 핵심을 한 권에!
시골 농부의 마음공부
수행과 농사일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귀촌 농부가 그동안 공부하고 닦은 바, 즉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과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김일문 지음/국판/양장/256쪽/값 17,000원

동화로 읽는 보왕삼매론!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고 경책해야 할 10가지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보왕삼매론」을 어린이들이 생각해볼 수 있게 재미있는 동화로 각색하였다.
한상희 글, 용정운 그림/사륙배판 변형/108쪽/값 12,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